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 Letter 함께 나누는 행복한 이야기

동국대학교일산병원 · 일산한방병원, 2016학년도 전공의 수료식

동국대학교일산병원 · 일산한방병원은 지난 16일과 22일 2016학년도 전공의 수료식을 가졌다.

올해 수료를 마치는 전공의는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인턴 4명, 레지던트 4명과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인턴 27명, 레지던트 26명을 포함해 총 61명이다.

이날 수료식에는 각 기관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하여 그동안 고생한 수련의들을 격려하고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수료를 마친 전공의들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사회에 나가서도 동국대학교 동문의 일원으로서 병원과 학교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재난대비를 위한 교육 및 모의훈련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재난을 대비하여 가상훈련을 토대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모의훈련을 대강당에서 실시했다.

지난 16일 세브란스 재난의료교육센터 강사진으로 구성 진행된 이번 훈련은 재난준비의 중요성과 신속한 재난지휘체계 수립, 대량 환자 내원 시 환자처치 및 자원분배에 대한 이해 등에 대해 교육했다.

또한, 본원 자체적으로 실제 재난 시 피해 단계를 설정하여 과정을 검토하는 모의훈련도 시행했다.

이번 실전대비 모의훈련은 실무반을 대상으로 작동가능 실태를 점검하고 도출된 문제점은 보완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오는 5월 말 본원에서 실전 재난훈련을 시행할 계획이다.



교직원불자회 연우회, 우수신행자 성지순례 태국 방문

교직원불자회 연우회는 평소 신행이 우수한 직원을 선발하여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5박 7일간 태국으로 불교문화 탐방을 위한 성지 순례의 길에 나섰다.

성지순례는 태국 치앙마이 지역에 위치한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진 도이수텝 외에도 각각의 의미가 있는 왓쩌디루앙, 왓수완덕, 왓프라쌍, 왓치앙만을 방문해 태국민들의 불교문화를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이른 아침이면 스님들이 발우를 들고 나와 탁발을 하며 무릎을 꿇고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불자들의 모습은 마치 2600년 전 부처님이 계시던 그때로 돌아간 듯한 경건함을 느꼈다.

이번 성지순례 일정은 불교의 역사와 부처님의 가르침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일부 개정된 의료법률

2017년 3월 1일부로 환자의 증명서 또는 진료기록부 사본 교부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일부 의료법률이 개정되었다.

현행법상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불명,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행방 불명,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환자의 배우자, 직계(부모, 자녀) 가족만이 증명서를 받거나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법안은 환자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의료법이 일부 개정되어 교부 대상을 부모가 없는 미혼의 형제 · 자매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제17조 제1항 및 제21조 제2항 제1호 · 제3호 참조)

고객의 소리

내 집 같은 편안함에

42병동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동안 너무 많은 감동을 하였습니다.

저의 뛰어난 적응력인 줄 모르겠지만 입원기간 동안 내 집 같은 편안함에 퇴원하기 아쉬울 정도였습니다. 덕분에 치료를 빨리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실습 나온 간호대 학생분들 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곧 해외로 출국해야 하는데 건강하게 갈 수 있어 기쁩니다. 다시 한번 42병동 간호사님들의 친절에 감사드립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의료진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알 리 미

일산동구보건소 건강강좌

강사 : 한방여성의학과 김동일 교수

주제 : 중 · 노년기의 행복한 삶을 위한 지혜

일시 : 3월 3일(금) 오전 11시

장소 : 일산동구보건소